

식량자급률의 실태, 제대로 알자!

자주평등통일0615

[한국농정] 식량자급률/곡물자급률에 대한 이해

우리가 먹는 농산물 중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산된 우리 먹거리의 비중은?

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,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'자급률'에 대한 이해...

#식량자급률
#곡물자급률



식량 자급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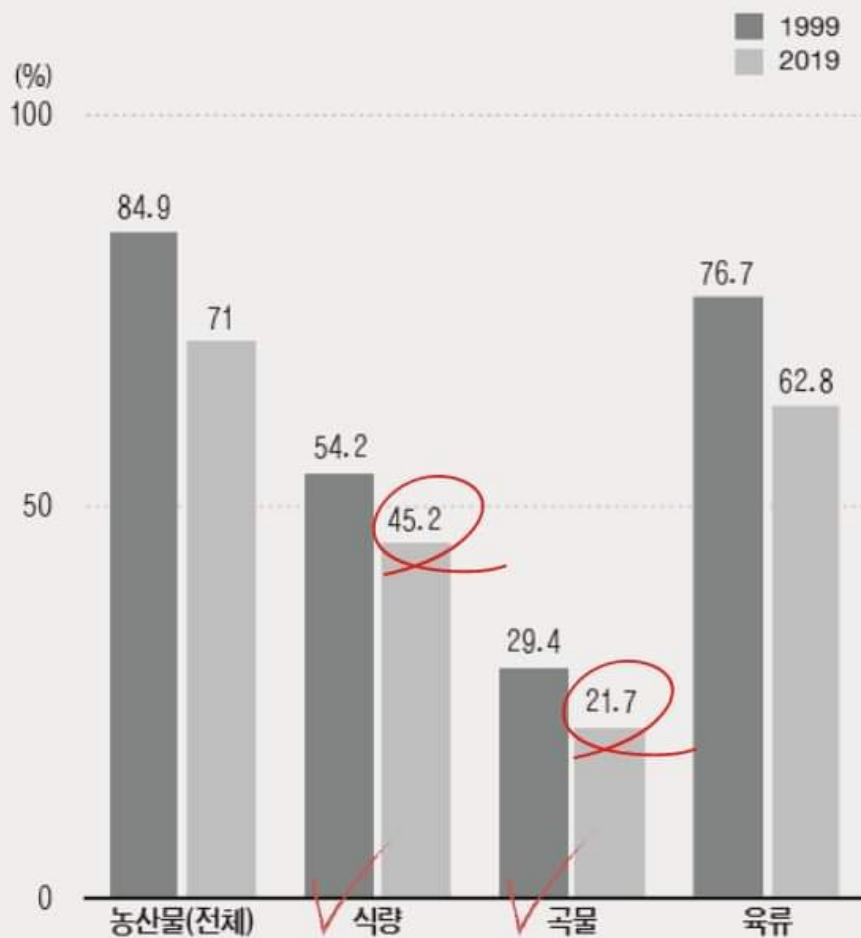
- 한 나라의 식량소비량 중 국내에서 자급되고 있는 정도
- '식량 안보(Food Security)'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
- 가축을 먹이는데 필요한 사료용 원재료 곡물을 제외한 주식용 곡물만을 대상으로 산정

곡물 자급률

- 전년도 전체 곡물생산량을 금년도 곡물 총수요량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 비율
- 곡물 총수요는 '식량용+가공용(식용, 양조용, 기타)+사료용+종자용+감모·기타'로 구성



최근 20년간 주요 자급률 변동 추이

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자급률의 극심한 불균형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'2020 농업전망'에서
올해 식량자급률을 45.4%로 전망

20년 전인 1999년 54.2%였던 식량자급률은 연평균 -0.4%의
낙폭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9년엔 45.2%를 기록

속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불균형이 눈에 띈다. 그동안 목표가격을
설정해 폭락 시에도 이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했던 쌀의 경우 지난
2018년 자급률은 97.3%로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.

그러나 밀의 경우 같은 해 자급률은 1.2%로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
의존한다.

식습관의 급격한 변화로 현재 1인당 연간 밀소비량(32.2kg)이
쌀(61kg)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위험 요소

21.7% 수준인 곡물자급률

수요를 가축사료로까지 확대한 경우를 일컫는 '곡물자급률'은 21.7%로 내려앉았는데, 이는 쌀 이외의 곡물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.

특히 옥수수과 콩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77%와 69%가 가축을 먹이는데 쓰여

1인당 소비량이 20년 동안 평균 60%(소, 돼지, 닭 합산)가 늘어난 육류의 경우 역시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줄어

지난 1999년 76.7%를 기록했던 육류 자급률은 미국 등 농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영향 등으로 2018년 63.0%, 2019년 62.8%까지 하락

하락하는 농산물자급률

곡물과 채소, 과수 및 축산물 등 농업 생산 분야 전체를
아우른 자급률이 농산물 자급률...

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식용 농산물 자급률은
지난 1999년 84.9%에서 20년 새 71%로 하락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
지속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지면적 감소 영향으로
연평균 0.2%p가 하락해
오는 2029년에는 69.3%에 이를 것으로 봄

